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9, No.3, 299-308, 2003.

주요용어 : 교육의도, 배란 인지, 성적 자율성, 인식, 자연출산조절방법

서울시내 일부 병원 간호사의 자연출산조절 방법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도

박 재 순[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계획이란 부모의 건강, 가정의 경제적 능력, 자녀를 양육해 낼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알맞게 계획을 세워서 출산을 하자는 것으로 자녀수, 터울, 출산시기를 부부가 함께 계획하는 것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Lee et al., 1997).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신을 하거나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출산조절방법이 요구되며, 피임은 임신을 자발적으로 예방하는데 있다(Lee et al., 2001).

오늘날에는 부부중심의 사고, 개인의 자아실현 중시,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며 심지어는 무자녀를 희망하기도 하여 조기에 단산하는 추세에 있어 결혼한 여성의 출산조절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고려되며 조기에 출산조절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병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 이전에 피임이나 성병예방에 대한 지식이 강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배우자가 있는 15-44세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1997년 80.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KIHSA, 1998), 인공유산 경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가임여성의 44%가 인공유산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반수 가량(19.3%)은 두 번이상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어(Cho, 1997)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임실천률에 비해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적으로도 출산조절은 많은 여성에서 부담의 요소가 되고 있어, Cho와 Lee(1997)는 가임기 기혼여성의 피임 경험에서 피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피임의 부담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출산조절방법은 인체에 대한 조작여부 및 작용원리를 기준으로 크게 자연적인 방법과 인공적인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늘날 피임을 위해 다양한 인공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모두 배제하지는 못하며 무분별한 피임 방법의 사용은 성을 경시하고 상품화하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자연적인 방법은 월경주기의 가임기와 불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증후를 관찰하여 임신을 계획하거나 방지하는 방법으로(WHO, 1987) 정의하여 그 의미를 출산조절에 두고 있다. WHO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임상적 연구들은 자연적 방법이 과학적 관점에서 지지됨을 확인해 왔다(Guida et al., 1999). 자연적 방법은 몸에 해

1)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투고일 03.8.25 심사의뢰일 03.8.26 심사완료일 03.9.13

롭지 않고, 경제적이며 부부사이에 긍정적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자기가치를 증진시켜 주는 등의 많은 이점이 있음(Park, 1997)에도 불구하고 월경주기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주기적인 금욕과 절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가치 성향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자연적인 방법보다 인공적인 방법의 채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anford et al., 1998). 또한 현장경험을 통해서 볼 때 자연적인 방법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자의 절대수와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인공적인 방법들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더불어 자연적인 가족계획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1991년이후 자연적 방법으로서 월경주기법의 사용이 7.0%에서 1994년 7.3%. 1997년 10.7%로 증가되고 있으며(KIHSA, 1998), 특히 Kwon, Kim, Jun과 Park(2000)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직장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만 18세에서 50세 여성 361명에서 자연가족계획방법에 대해 45.4%가 앞으로 피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30.5%가 임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어 자연적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간호사는 기초교육과정에서 인체 생리, 임신 및 출산, 가족계획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하며, 여성 스스로 성에 관련된 문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출산조절에 대한 문제 또한 곧 자신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다른 여성에게 출산조절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자원으로 고려된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출산조절방법 특히 자연적 방법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도를 조사함으로써 간호사 자신은 물론 일반 여성들의 적절한 출산조절방법의 선택과 성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자로서 활용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자연출산조절방법 교육의도 여부에 따른 개인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출산조절방법 유용성 인지와 사용경험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자연출산조절방법 인식과 사용경험 및 신체변화 인지정도를 파악한다.
3) 교육의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출산조절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313명으로 개인적인 동의가 있는 자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유용성 인지 및 사용경험

알려진 출산조절방법에 대해 유용한 것으로 인지하는 방법을 3개 선택하도록 하고, 사용경험이 있는 방법과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 5점에서 매우 불만족 1점의 5단계 평점척도로 구조화하여 측정하였다.

2) 자연출산조절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인식

알고 있는 자연출산조절 방법을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록하고 선택한 방법에 대한 사용 자신감을 매우 자신있음 5점에서 매우 자신없음 1점으로 5단계 평점척도로 측정하고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유효성, 무해성, 편의성, 경제성, 단순성, 자신감, 배우자 협조, 가치성, 의미부여 등에 대해 10점단위로 눈금을 표시하여 0-100점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2 이었다.

3) 가임기 신체변화 인지

배란에 관련하여 신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정도를 묻는 6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단계 평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총점이 높을 수록 신체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7 이었다.

4)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성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특히 여성이 성적 욕구 표현 및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성이나 생식건강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타고나거나 훈련된 인성적 특성을 의미하며(Kim, 2001), 연구자의 문헌탐색과 Chang(200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적 자율성 도구 13문항을 근거로 단순한 피임이 아닌 출산조절의 개념을 가지고 일부 문장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단계 평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총점이 높을 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 이었다.

5) 생명의식

임신과 그에 따른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저자가 구성한 6문항 도구로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단계 평점척도로 측정하여 총점이 높을 수록 생명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0 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출산조절과 자연적 방법에 대한 인식은 기술적 통계로 분석하고, 자연출산조절 방법에 대한 교육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의도가 확실히 있거나 없는 군과 교육의도가 있으나 자신없음을 나타낸 3개 군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 자연출산조절에 대한 인식, 신체변화 인지, 성적 자율성, 생명의식의 차이를 ANOVA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8.2세(표준편차 5.0)이었고 범위는 최고 49세에서 최저 21세이었다. 교육정도는 전문대학 졸업이 55.0%이었고, 석사과정 이상도 12.1%이었다. 근무부서는 내, 외과 분야가 47.9%로 가장 많았고, 산, 소아과 분야는 31.6%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33.9%이었고, 미혼 간호사가 60.1%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313)

Characteristics		n	%
Age (years)	21~24	90	28.7
	25~29	118	37.7
	30~34	71	22.7
	35~39	20	6.4
	More than 40	14	4.5
Education	Diploma	172	55.0
	B.S.N.	103	32.9
	Over graduate	38	12.1
Working department	Medical/surgical ward	150	47.9
	Gynecologic/pediatric	99	31.6
	Intensive care unit	50	16.0
	Others	14	4.5
Religion	Yes	106	33.9
	No	207	66.1
Marital status	Unmarried	188	60.1
	Married	125	39.9
Regularity of menstruation	Regular	234	74.8
	Irregular	79	25.2
Amount of menstruation	Large	55	17.9
	Moderate	218	71.0
	Small	34	11.1
Menstrual symptom*	Abdominal pain	197	62.9
	Back pain	142	45.4
	Pelvic heaviness	122	39.0
	Mood change	103	32.9
	Breast symptom	108	34.5
	Headache	4	1.3
	Nausea	3	1.0
	Others	7	
Information about childbirth control	Very enough	23	7.4
	Enough	76	24.5
	Moderate	160	51.6
	Poor	47	15.2
	Very	4	1.3
Using intent for NCC forward	Yes	251	84.2
	No	47	15.8
Awareness of educational necessity for NCC	Yes	261	87.3
	No	38	12.7
Educational intent for NCC	Yes	263	84.8
	No	47	15.2
Counceling intent for NCC	Yes	59	19.1
	No	250	80.9

* Included duplicated response

월경주기는 74.8%가 규칙적이었고, 월경량은 71.0%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월경시 증상은 하복통이 62.9%, 요통이 45.4%, 복부 무게감 39.0%, 유방증상 34.5%, 기분변화 32.9%의 순위로 나타났다.

출산조절에 대한 정보는 31.9%가 충분하거나 매우 충분하다고 하였고, 51.6%는 보통이라고 하였다.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사용의사는 84.2%가 있었고, 교육 필요성은 87.3%가 인지하고 있었고, 교육의도는 84.8%가 가지고 있으나 그중 31.3%가 자신없음을 나타내었고 개인적인 상담이나 교육은 19.1%만이 참여의도를 나타내었고, 46.9%가 전문가에 의뢰하겠다고 하였고, 32.7%는 대상자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하였다<Table 1>.

2. 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유용성 인지와 사용경험

유용한 출산조절방법으로 인지하는 것은 콘돔이 73.2%, 월경주기법 56.9%, 점액관찰법 35.1%, 정관결찰술 31.3%, 경구피임약 24.9%의 순위를 보였다.

사용경험이 있는 출산조절방법은 월경주기법과 콘돔사용이 각각 12.1%, 점액관찰법 7.7%, 성교중단법 3.5%, 경구피임약 2.6%의 순위를 나타내었고, 사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정관결찰술이 1명 사용으로 5점 만점을 나타내었고, 그 외에 성교중단법 4.0점, 자궁내장치 3.8점, 점액관찰법과 월경주기법이 각각 3.6점, 기초체온법 3.5점의 순위를 나타내었다<Table 2>.

3.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경험

알고 있는 자연출산조절방법은 월경주기법이 41.5%, 기초체온법이 34.8%, 점액관찰법이 34.2%, 증상체온법이 11.52%의 순위를 나타내었고, 대상자의 7.6%가 성교중단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용에 대한 자신감은 월경주기법이 3.3점, 점액관찰법이 3.0점, 증상체온법 2.9점, 기초체온법이 2.9점의 순위를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3> Natural childbirth control methods known and confidence score for using

Methods	n(%)	Confidence Mean(SD)
Symptothermal	36(11.5)	2.9(1.2)
Cervical mucus method	107(34.2)	3.0(1.1)
Basal body temperature	109(34.8)	2.8(1.0)
Rhythm method	130(41.5)	3.3(0.9)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 평균은 62.0(14.4)점이었고, 문항에 따른 인식정도는 무해성(77.9), 경제성(75.3), 의미부여(71.3), 가치성(70.6)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고, 편리성(49.2), 자신감(51.3), 협조성(52.4), 유효성(53.5), 단순성 (56.5) 측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인식정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Recognition for natural childbirth control methods by items

Items	Mean(SD)
Effectiveness	53.5(20.4)
Harmlessness	77.9(18.2)
Convenience	49.2(22.4)
Economical	75.3(44.8)
Simplicity	56.5(22.1)
Self-confidence	51.3(20.8)
Cooperative	52.4(22.1)
Value	70.6(18.3)
Meaningful	71.3(18.5)

<Table 2> Awareness of usefulness, using experience and degree of satisfaction for childbirth control methods (N = 313)

Methods	Awareness of usefulness n(%)	Using experience n(%)	Degree of satisfaction Mean(SD)
Oral contraceptives	78(24.9)	8(2.6)	3.1(1.0)
Condom	229(73.2)	38(12.1)	3.2(0.9)
Symptothermal	16(5.1)	2(0.6)	3.0(1.4)
Cervical mucus method	110(35.1)	24(7.7)	3.6(0.7)
Vasectomy	98(31.3)	1(0.3)	5.0(0)
Intra uterine device	30(9.6)	4(1.3)	3.8(0.5)
Basal body temperature	70(22.4)	4(1.3)	3.5(0.6)
Rhythm method	178(56.9)	38(12.1)	3.6(0.8)
Withdrawal	29(9.3)	11(3.5)	4.0(0.9)
Tubaligation	0	2(0.6)	2.5(0.7)

*Included duplicated response

4. 가임기 신체변화 인지, 성적 자율성과 생명의식 정도

가임기 신체변화 인지 정도는 평균 3.4(0.8)점이었고, 가임 시기(3.8), 유방의 변화(3.8), 점액의 변화(3.7)는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심리변화(3.0), 기초체온의 변화(3.1), 복부증상(3.1)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인지하고 있었다<Table 5>. 성적 자율성 정도는 평균 3.8(0.5)점, 생명의식 정도는 평균 2.8(0.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5> Awareness of bodily changes in ovulation phase

	Mean(SD)
Fertile/ infertile phase	3.8(1.0)
Changes of mucus	3.7(1.1)
Changes of BBT	3.1(1.2)
Abdominal symptom	3.1(1.2)
Mood changes	3.0(1.2)
Changes of breasts	3.8(1.1)

5. 교육의도 영향요인

교육의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미래 자연적인 방법의 사용의사, 자연적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지와 인식 등으로 교육의도군의 연령은 20대가 60.8%, 30대가 33.7%인데 비해 교육의도가 없는 군은 20대가 55.3%, 30대가 38.2%로 나타났고(P=.02), 결혼상태는 교육의도군이 미혼 56.6%로 의도가 없는 군 46.8%보다 높았고 (P=.01), 미래 자연적인 방법의 사용의사는 교육의도군에서 사용 의사가 88.8%인데 비해 교육의도가 없는 군에서는 53.3%로

<Table 6> Characteristics by educational intention for natural childbirth method (N=310)

Characteristics		With intent (n=166)	With intent but no confidence (n=97)	Without intent (n=47)	χ^2(p)
Age (years)	21~24	50(30.1)	28(28.9)	11(23.4)	
	25~29	51(30.7)	50(51.6)	15(31.9)	18.20
	30~34	43(25.9)	15(15.5)	13(27.6)	(.02)
	35~39	13(7.8)	2(2.9)	5(10.6)	
	More than 40	9(5.4)	2(2.0)	3(6.4)	
Education	Diploma	68(42.2)	67(41.6)	26(16.2)	6.24
	BSN	43(42.6)	46(45.5)	12(11.9)	(.18)
	Over graduate	17(46.0)	10(27.0)	10(27.0)	
Working department	Medical/surgical	62(44.0)	61(43.3)	18(12.7)	4.29
	Gynecologic/pediatric	40(41.2)	41(42.3)	16(16.5)	(.63)
	Intensive care unit	21(44.7)	16(34.0)	10(21.3)	
	Others	5(35.7)	5(35.7)	4(28.6)	
Religion	Yes	57(56.2)	35(36.1)	13(15.9)	1.04
	No	109(65.7)	62(64.2)	34(72.3)	(.60)
Marital status	Unmarried	94(56.6)	70(72.2)	22(46.8)	10.18
	Married	72(43.4)	27(27.8)	25(53.2)	(.01)
Information for fertility control	Very enough	3(1.8)	1(1.0)	0	
	Enough	24(14.6)	14(14.3)	9(19.2)	15.73
	Moderate	72(43.90	63(65.0)	23(48.9)	(.05)
	Poor	50(30.5)	16(16.5)	10(21.3)	
	Very	15(9.2)	3(3.1)	5(10.6)	
Using intent for NCC forward	Yes	142(88.8)	83(91.2)	24(53.3)	37.92
	No	18(11.2)	8(8.8)	21(46.7)	(<.0001)
Using intent for NCC forward	Yes	150(94.9)	89(8.8)	20(45.4)	80.78
	No	8(5.1)	6(6.3)	24(54.6)	(<.0001)
Recognition for NCC methods		64.1(13.4)	59.7(15.4)	58.7(14.8)	4.28(.01)
Awareness of bodily change		3.5(0.7)	3.3(0.7)	3.4(0.9)	2.26(.09)
Sexual autonomy		3.8(0.5)	3.7(0.5)	3.4(0.9)	2.05(.13)
Recognition of fetal life		2.8(0.7)	2.9(0.6)	2.8(0.6)	0.52(.59)

낮았다 (P<.0001). 자연적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지는 교육의도군에서 94.9%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에 교육의도가 없는 군은 45.4%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P<.0001), 자연출산조절에 대한 인식은 교육의도군에서 64.1점인 반면 교육의도가 없는 군에서는 58.7점을 나타내었다 (P=0.01)<Table 6>.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60.1%가 미혼상태이었으나 출산조절방법으로는 콘돔과 월경주기법을 유용하게 생각하였고,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해서는 월경주기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나 그 비율은 41.5%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다. 이는 Kwon 등(2000)이 가임기 여성에서 자연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66.5%라고 한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그 이유는 대상자가 아직 미혼인 간호사가 많아 출산조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Stanford 등(1994)은 대부분의 여성이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기초체온법에 대해서는 43%가 알고 있고, 점액방법은 30%가, 증상체온은 2%가 알고 있었으나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43%가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해 더 배우기를 원했고, 24%가 피임을 위해, 32%가 임신을 위해 자연조절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 보고를 볼 때 자연적인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 경험이 있는 출산조절방법으로는 월경주기법과 콘돔사용이 각각 12.1%, 점액관찰법 7.7%, 성교중단법 3.5%, 경구피임약 2.6%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부분 기혼 간호사의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Kwon 등(2000)에서는 서울 경기 일부지역 가임기 여성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인공피임방법으로는 콘돔 60.9%, 질외 사정 48.8%, 자궁내 피임장치 18.3%, 경구피임약 16.3% 등이었고, 자연적 방법으로는 피임을 위해 주기법 34.3%, 점액관찰법 10.8%, 기초체온법 6.9%, 증상체온법 4.8% 등으로 경험한 것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기혼 간호사일지라도 아직 자녀출산 단계에 있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출산조절방법의 사용 경험에 따른 만족도는 성교중단법과 자궁내 장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반응을, 점액관찰법과 월경주기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중단법 또는 질외 사정법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차단방법의 하나로 남성이 사정하고자할 때 질에서 떨어진 생식기 외부에 사정하는 것으로 개인이 통제하는 방법이나 인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면에서도 사용 첫해 동안은 예측하지 못한 임신율이 약 18%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내 장치는 정자의 이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자궁내의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방법으로 자궁경련, 요통, 출혈, 삽입 기술과 관련된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여(Lee et al., 1997) 아직 출산을 종료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의학적인 합병증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연적 출산조절방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남성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및 이를 주관하는 신경계 및 호르몬의 기능을 알아야 하는 것 이외에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홀몬 분비와 관련하여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가임증후와 난자와 정자의 생존기간을 중심으로한 가임성 월경주기에서 초기 비가임기, 가임기 및 후기 비가임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배우자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 자신의 신념과 배우자와의 자연출산조절 실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Park, 1997).

자연적 방법에 대한 사용 자신감은 월경주기법과 점액관찰법에 대해서 보통수준을 나타내었고,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62.0), 문항에 따른 인식정도는 무해성(77.9), 경제성(75.3), 의미부여(71.3), 가치성(70.6)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편리성(49.2), 자신감(51.3), 협조성(52.4), 유효성(53.5), 단순성(56.5) 측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인식정도를 보였고,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자연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반면 인공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Cho와 Lee(1997)에 의하면 가임기 기혼 여성이 피임을 하면서도 정보 획득에는 혼란이 있고, 피임법의 부작용과 불편감에 대한 불안이 있으며, 피임 종류에 제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으나 이를 불가피하게 생각하여 불편감이 있으나 참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만 대부분 출산조절방법의 선택을 고민하였고, 자기에게 적합한 피임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피임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여 평균 2.5종의 피임법을 사용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체에 무해하며 사용상 부작용이 없는 자연적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연적 방법 중 월경주기법은 가장 짧은 주기에서 18일을 빼고, 가장 긴 주기에서 11일 뺀 기간 동안을 가임시기로 보는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는 가임시기를 예상하는데 도움이 되나, 월경주기의 변화에 따라 배란 전의 길이가 변화하게 된다(Lee et al., 2001). 한편 기초체온법은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배란후 기초체온 상승을 확인할 수 있고, 점액관찰법은 월경주기 중 배란을 중심으로 경관점액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가임기과 비가임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배란과 정자의 생존을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며 (Moghissi, 1992) 자연적인 방법은 한가지로서 사용하기 보다 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임기를 확인하는데 보다 유용하다.

특히 WOOMB(2003)는 배란을 중심으로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질점액 양상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가임기와 비가임기를 구분하도록 하는 배란법을 널리 보급해 왔다. 그러나 자연적 방법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 효과적이어서 정확한 시기에 사용할 때 100% 유효하지만 계속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으므로 Dorairaj(1991)는 그 효과를 임신을 피하는데는 97-99%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Fehring, Lawrence와 Philpot(1994)는 98.8%로 보고하고 있다. Guida 등(1999)은 배란을 확인하는데 질초음파 검사가 소변내 LH, 질점액에 대한 느낌과 양상, 타액검사, 기초체온 검사의 순위로 상관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어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연적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질점액에 대한 느낌과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산조절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는 개인의 가치의식이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율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성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서 개인의 출산조절 결정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 수준이 보통 수준에 머물렀고, Kim(2001)의 결과에서도 성적 자율성이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우리의 성문화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 확립과 여성 스스로 성에 대한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참여 의도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영향은 20대가 30대보다, 미혼간호사가 기혼간호사보다 교육참여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 간호사의 경우 미혼인 경우가 많고, 미혼 간호사는 출산조절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론적으로 자연적인 출산조절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나 30대에는 기혼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출산조절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미혼 간호사 보다 기혼 간호사가 실제적인 경험을 근거로 교육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므로 기혼 간호사의 교육의도를 끌어내기 위한 시도가 요구된다.

또한 미래 자연적인 방법의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와 자연적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우에 교육의도가 높고, 자연출산조절에 대한 인식이 교육의도군에서 더 높았는데, Stanford, Thurman과 Lemaire (1999)에 의하면 의사의 경우 46%가 생식적 문제로 상담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의논에서 자연조절방법에 대해 언급한 경험이 있었고, 피임을 위해 40%가, 임신을 위해 36%가 점액관찰법에 대해 상담하였다고 하였고, 출산조절에 대한 효과기대는 22%의 의사가 90%의 효과를 추정하였고, 35%의 의사는 70% 이상의 효과를 추정하였다고 하여 교육자 스스로 효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담을 위해 자연출산조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볼 수 있고, 따라서 간호사의 경우에도 자신이 자연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교육의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가임기 신체변화 인지, 성적 자율성, 생명의식 면에서 교육의도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간호사 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월경주기에 대한 민감성이 낮을 뿐 아니라 배란에 관련된 신체변화에 대한 정보가 적으며 여성의 성의식이 개방화되어 간다 하더라도 아직 전통적인 성의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출산조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인공유산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간호사의 자연출산조절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이나 직접 교육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출산조절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기혼 간호사의 교육의도가 낮으므로 이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출산조절의 장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일이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한 교육의도 여부에 따른 개인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13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작성한 출산조절방법과 자연적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인식에 대한 설문지와 가임기 신체변화인지, 생명의식 측정도구와 장순복의 성적 자율성 도구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와 ANOVA가 적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용한 출산조절방법으로 인지하는 것은 콘돔이 73.2%, 월경주기법 56.9%, 점액관찰법 35.1%, 정관 결찰술 31.3%, 경구피임약 24.9%의 순위를 보였다.
2. 사용경험이 있는 출산조절방법은 월경주기법과 콘돔 사용이 각각 12.1%, 점액관찰법 7.7%, 성교중단법 3.5%, 경구피임약 2.6%의 순위를 나타내었고, 사용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정관결찰술, 성교중단법, 자궁내장치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알고 있는 자연출산조절방법은 월경주기법이 41.5%, 기초체온법이 34.8%, 점액관찰법이 34.2% 등으로 나타났다. 사용에 대한 자신감은 월경주기법이 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인식은 평균 62.0(14.4)점이었고, 항목에 따라서는 무해성(77.9), 경제성(75.3), 의미부여(71.3), 가치성(70.6)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 되었다.
4. 가임기 신체변화 인지 정도는 평균 3.4(0.8)점이었고, 성적 자율성 정도는 평균 3.8(0.5)점이었다.
5. 교육의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자연적 방법의 미래 사용의사와 자연적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지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출산조절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출산조절방법에 대한 계획된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References

Chang, S. B. (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8*(1), 106-115.

Cho, N. H. (1997). National survey of fertility and family health. *Korean Research Center for Health Social Affairs*, Korea.

Cho, O. S., & Lee, M. L. (1997). Experience of the married women on contracep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3*(1), 77-91.

Dorairaj, K. (1991). The modified mucus method in India. *Am J Ob Gy, 165*, 2066-67.

Fehring, R. J., Lawrence, D., & Philpot, C. (1994). Use effective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symptothermal method of natural family planning. *JOGNN, 23*, 303-309.

Frank-Herrman, P., Freun, G., Baur, S., Bremme, M., & Doring, G. K., Godehardt, E. A. J., & Sottong, U. (1991). Effective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symptothermal method of natural family planning in Germany. *Am J Ob Gy, 165*, 2052-2054.

Guida, M., Tommaselli, G. A., Palomba, S., Pellicano, M., Moccia, G., Carlo, C. D., & Nappi, C. (1999). Efficacy of methods for determining ovulation in a natural family planning program. *Family & Sterility, 72*(5), 900-904.

Kim, M. J. (2001).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plaining contraception behaviors of married korean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7*(2), 141-156.

KIHSA(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8). National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older persons. Seoul, Korea.

Kwon, H. R., Kim, Y. C., Jun, J. W., & Park, E. S. (2000). The related factors of pregnant women's acceptance of natural family planning in a certain area. *J Korean Acad Fam Med, 21*(2), 222-233.

Lee, K. H., Park, Y. J., Byun, S. J., You, E. K., Lee, M. L., Lee, Y. S., et al. (1997). Women's health nursing. Hyunmoonsa, Seoul.

Lee, Y. S., Ko, M. S., Kim, H. J., Sim, M. J., Oh, H. H., Lee, E. S., et al. (2001). Women's health nursing. Hyunmoonsa, Seoul.

Moghissi, K. S. (1992). Ovulation detection. *Endocrinol Metab Clin North Am, 10*, 221-240.

Park, S. A. (1997). A cultural descriptive study on experiences in using the method of natural family planning.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tanford, J. B., Lemaire, J. C., & Fox, A. (1994). Interest in natural family planning among female family practice, *Family Practice Research J, 14*(3), 237-249.

Stanford, J. B., Lemaire, J. C., Thurman, P. B. (1998). Women's interest in natural family planning. *J Family Practice, 46*(1), 65-71.

Stanford, J. B., Thurman, P. B., & Lemaire, J. C. (1999). Physician's knowledge and practices regarding natural family planning. *Ob & Gy, 94*(5), 672-678.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7). Fertility awareness methods: Report on a WHO workshop. Geneva, Switzerland: WHO Publication No. ICP/MCN 518, RMI/79/P05 UN -FDA 1706.

WOOMB(World Organisation Ovulation Method Billings)(2003).: http://www.womb.org/bom/lit/teach/index.html

- Abstract -

Nurse's Perceptions and Educational Intentions Regarding Natural Childbirth Control Methods

Park, Chai Soon[1)]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nurses' perceptions and educational intentions regarding natural childbirth control (NCC) method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313 nurses working at three general hospitals in Seoul. They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composed of scales measuring knowledge and perceptions childbirth control methods, awareness of bodily changes in ovulation phase, perceptions of fetal life, which were developed by the author. Also, Chang's (2002) Sexual Autonomy Inventory was utilized.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AS program. **Results:** Methods of condom and rhythm were considered to be more useful for childbirth control than other methods. Only 34-54% of them knew exactly about the NCC methods using menstrual cycle, body temperature, and mucus. The mean scores of sexual autonomy and awareness of bodily changes in ovulation phase were 3.8 and 3.4 out of 5, in respect. Educational intention was different statistically by the age, marital status, future intention to use NCC methods, and perception of educational need for NCC methods. **Conclusion:** Nurses' perceptions and educational intentions regarding NCC were low, especially in nurses who were married. It is recommended to encourage nurses to learn NCC methods for clients education.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ey words : Bodily changes in ovulation phase,
Educational intention,
Natural childbirth control,
Perception,
Sexual autonomy